

독서체계 연구의 성격과 절차

김 대 행

1. 머리말

우리 연구소는 국어교육 이론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1992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독서체계 연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도 절감되어 왔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한다면, 각급 학교의 교과서 편찬 때마다 선정되는 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늘 궁금했던 것입니다.

한 예로, 알퐁스 도데의 단편 소설 '별'은 우리 교과서에서 가장 수명이 긴 글 가운데 하나로, 1962년부터 오늘까지 교과서에 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경이로운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이 작품은 1962년 1차 교육과정기에 고등학교 3학년용 국어 교과서에 실린 것을 시작으로 3차 교육과정기까지 무려 23년 간 그 자리를 굳게 지키더니, 1985년에 나온 4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고, 그로부터 6년 후인 1991년에 나온 5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돌연하게도 중학교 3학년 2학기 교과서로 급격한 이동을 하였음을 봅니다.

교과서가 보여 준 것은 학년급별 단위에서의 이동만이 아닙니다. 1차

교과서에서는 ‘단편 소설’이라는 단원에 이 작품이 실려 있고, 2차에서는 ‘현대문학의 감상’에, 3차에서는 ‘문학과 인생’에, 4차에서는 ‘소설의 주제’라는 단원에 실려 있음을 봅니다. 셰익스피어는 위대해서 문학 연구의 어떤 방법에도 건디어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작품 한 편을 두고 교육의 목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충분한 연구 끝에 이루어진 결과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급격한 변화에는 또 그럴 만한 필연적 이유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어교육에 관련된 이론을 개발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급격한 변화가 타당한 것이라면 그 까닭이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독서체계 연구’는 그러한 국어교육의 현실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내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실은 과거의 반성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포부가 담겨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지향 쪽에 중점을 두어 이 연구를 수행하려 합니다.

사실 이 연구는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독서교육의 주역이 국어교육이고 보면, 이 연구는 우리 국어교육연구소가 담당해야 할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개인 연구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연구이기에, 우리 연구소가 책임과 의의를 동시에 느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 그 책임에 근거하여 이 일을 진행하게 된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연구의 목표와 대상

1) 연구 목표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왜 독서해야 하는가? 둘째, 어떤 것을 독서해야 하는가? 셋째, 어떻게 독서해야 하는가? — 이를 독서의 목표, 범주, 방법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문학감상’과 ‘교양독서’의 두 분야로 갈라 논의해 보고 각기 독서 체계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독서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토록 하면서, 그러한 가치에로 나아가기 위한 독서자의 능동적인 의욕과 능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려는 또 하나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므로, 논리나 현실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의 진행 단계

독서의 목표, 범주, 방법 — 이 세 가지 질문은 1단계 연구의 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이처럼 이론적인 추구의 결과로 파악되는 원칙과 기준들을 정립해 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는 사뭇 원론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소가 담당해야 할 몫으로서 가장 귀중한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이 있는 이론이라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의미를 지니지 못할 때 그 의의가 상쇄된다는 점과, 국어교육의 이론이 현실에 환원되어 그 기능을 발휘할 때 실용학문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1단계에서 정립된 이론을 바

탕으로 실제적 측면을 고찰하는 2단계 연구로 발전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2단계 연구는 또 다른 구성원으로 된 연구진이 구체적인 독서 목록 선정과 독서 방법의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만, 이 연구는 1단계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1단계 연구의 마지막과 2단계 연구의 처음은 양쪽의 연구진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단계에서 연구한 '목표·범주·방법'의 이론을 토대로 2단계 연구에서 독서 목록과 독서 방법 모형이 구상되면, 이러한 원리와 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자료를 편찬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제적인 독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 연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만, 이 마지막 단계의 성패조차도 이 1단계, 그리고 이어지는 2단계의 연구 성과가 좌우하게 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3단계 과업인 독서 자료 출판에 들어가기 전에 1단계 연구와 1단계 연구의 성과를 묶어 학계와 일반에 평가를 받는 일도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론 자체의 투명성과 건강성은 다수인이라는 현실 속에 투영될 때 비로소 그 정당성과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여기에 깃들여 있습니다. 그 학술회의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조치를 하려는 것도 지금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어디까지나 연구소측의 계획에 지나지 않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연구의 분야

이 연구를 두 분야로 나누어 '문학감상'과 '교양독서'로 명명한 것은 특별한 뜻을 갖지 않습니다. '문학·비문학'의 구분도 있을 수 있고, '문학·사상'의 구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문학'은 '교양'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문학'은 '독서'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러나 '문학·비문학'은 지나치게 문학 중심적 명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문학·

사상'은 포괄성이 부족하다는 염려 때문에, 예술인 문학을 제외한 일반 교양이라는 의미에서 '문학감상'과 '교양독서'로 명명하였습니다. 더 좋은 명명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만, 예술문화로서의 '문학'과 생활문화로서의 '교양'을 설정함으로써 독서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자 한 의도를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독서란 인간이 평생을 두고 해야 하는 과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어 교육이 문자 식별이나 문장 오류 극복의 차원에 머무는 소박한 것이 아니라 사회교육의 영역과 문화교육의 영역에까지 확대되고 그를 위한 이론이 개발되어 마땅하다는 점에서, '독서체계 연구'는 마땅히 인생의 모든 단계에 걸쳐 체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 규모의 조정 필요성, 이론 및 경험의 축적 필요성, 현실적인 효용에 부응할 필요성 등의 이유 때문에 이번 연구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독서'를 대상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대학생이나 일반인의 독서체계 연구에까지 우리의 힘이 미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3. 연구의 중점

1) 독서의 목표 - 왜 독서를 하는가

'독서의 목표'에서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는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명료하게 정립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보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의 답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짐작컨대, 이 답은 독서를 통해 얻게 되는 정신적 성과들의 용어로 제시될 듯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그 다음에 이어질 질문인 '범주'와 '방법'을 규정하게 되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방향 설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가 없더라도 천하에 이미 독서는 있어 왔고 또 앞으로

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는 일이 즐겁다든지, 독서를 하면 얻는 것이 있다는 경험 일반에 비추어서도 독서는 지속될 것이고, 독서가 쉽사리 저버리기 어려운 우리의 문화 양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비추어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의 목표를 설명적인 언어로 진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동기가 명확하고 강렬할수록 성과는 증대된다는 심리학적 판단이 아니더라도 의식화된 목적에 의한 가치 추구는 일회적인 삶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적어도 사람들에게 독서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분명하게 각인된 값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면의 원리들을 체계화하려 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연구의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방면의 연구가 놀랍게도 가난함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국어책에는 ‘앓, 깨달음, 감동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읽기의 학습목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학습목표가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설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이 방면의 연구들을 돌아본다 해도 어쩌면 이 수준을 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들을 다른 용어로 바꾸어 설명하거나, 동일한 것을 다른 국면과 연합시켜 설명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독서를 강조하는 말은 많이들 합니다만, 독서의 개념이 ‘독해’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저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정은 영어로 된 독서 이론서들이 목차와 본문의 갈피 갈피에서 ‘독서’를 ‘comprehension’으로 치환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독서가 ‘읽기’라는 하나의 기술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요즘에 강조되는 실용적 관점 때문인지, 아니면 지극히 불투명한 개념을 사용한 예언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법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가르쳐 유용하게 하고야 말겠다는 도구적 관점의 거센 영향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알아 그것을 씹고 산다는 생각이 그 기반일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런 교육의 관점을 떠나서 인간의 가치 추구라는 관점을 가져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가치’란 무엇인가 하는 점은 제가 헤아릴 능력이 없습니다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천하는 존재라는 생각에 많이 기울어져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독서의 가치나 목표도 그런 관점에서 제시해 주고, 독서자 스스로 그 보람을 찾아 삶을 개발해 가도록 하는 뜻으로 독서의 목표를 제시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최종적인 결과가 독서자 스스로 책을 읽어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의 출판에 있다는 점을 굳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독서란 기본적으로 홀로 하는 고독한 작업이라는 생각도 여기에는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의 생각이므로 잘못된 것이라면 시작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면, 연구사의 빈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구가 대단히 참신하지 않은들 무어 그리 큰 문제일까 싶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제시된 수준에 머문다 해도 상관 없을 듯합니다. 아니 우리 인류가 독서하는 목표가 어찌면 그게 전부이자 최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연구의 결과가 그래도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째서 그것이 그러한가를 명확하게 가시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목표의 점점에서 드러나는 원리들이 다음 단계인 범주와 방법을 규정할 수 있을 만큼의 명쾌한 설명력을 갖기만 하면 우리의 성과로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면, 인간의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독서의 목표라는 각도에서 이 연구의 출발점을 삼자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말과 함께 ‘정신’, ‘문화’, ‘창의성’ 등의 용어를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2) 독서의 범주 - 무엇을 독서할 것인가

독서의 목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얼마간 거론될 것이 예상됩니다. 목적이 태도며 방법을 규정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한 예로, 서울대학교가 교양과목으로 ‘고전읽기’ 강좌를 설정하고, 또 인문과학연구소가 그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우리의 범주 연구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고전’이라는 당위를 설정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수순을 밟고 있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물리학과의 장희익 교수가 과학도의 입장에서 고전의 개념에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은 이 부분에 시사적입니다.

우리의 연구는 이 점에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관점을 달리 설정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실은 ‘고전’이라는 개념조차도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하여 설정된 개념일 것이므로, 한 인간의 성장과 가치 있는 삶 쪽에 시선을 두면 좀더 의미 있는 독서 범주가 구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도달점에 이른 후의 결과는 마찬가지로 될지라도 ‘무엇을 독서할 것인가’의 답도 한 인간의 삶에 맞추어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방면의 연구를 하는 동안 우리의 뇌리에 있는 다양성의 원칙, 성장 단계의 기준, 시대적 균형, 지역의 안배, 민족 문화 등의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꼭 새로운 필요는 없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이치에 의해서 그러한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독서하는 각자가 그 이치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독서 계획을 세우고 또 확신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돕자는 것이 이 연구의 뜻이기도 합니다.

3) 독서의 방법 - 어떻게 독서할 것인가

이 연구의 최종적인 형태가 충분히 길 안내된 독서 자료의 출판이라는 점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의 방법에서 우리가 연구할 목표는 자명해집니다. 즉, 독서 방법으로 제시되는 원리들은 독서의 목표로 정립된 가치들을 추구하는 경로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 방면의 연구사도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는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 방면의 이론이 많이 소개되었음은 물론, 국내의 연구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물결 속에 있는 용어들로 readability, metacognition, schema, skill 등은 아주 낮이 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이 우리가 구상하는 독서의 방법에 어떤 도움을 줄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말할 능력의 밖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readability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유아기라면 몰라도 다민족 국가도 아니고 교육 수준이 높은 우리 독서 문화에서 그만큼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를 저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fluency가 강조되는 것이라든가, literature as reading program이 표방되는 방법적 이론들이 어떤 기여를 할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들 용어가 지향하는 기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매우 부분적일 뿐더러, 그것들이 삶과의 관련 양상보다는 도구 사용법적인 성격이 짙기에 이런 의혹을 갖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편견을 가진 저로서는 이 방면의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방법을 생산해 낸다는 통념에 따라 생각한다면 독서의 목표가 이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독서를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도담게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을 구현하는 실천으로서의 독서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 イメージ化の読み, 経験や知識を読み生かす, 感想や問

題意識をもちつ, 焦点化の讀み, 音讀を生かす, 書くことによる讀み深化 등의 목차를 내걸고 있는 일본쪽의 현황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정도의 검토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연구소의 견해가 아니라 이 연구에 참여한 한 개인의 생각일 따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선생님들께서 기탄 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기탄 없음을 위하여 이 일을 시작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다소 과격해 보이는 주장도 주저 없이 내보였습니다.

이 연구의 첫 모임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도 연구의 성격이며 방향을 기획한 입장에서 편견에 가까운 입장을 말씀드리는 일이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을 줄지 장애가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기속력을 예상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일정이 바쁘고, 무엇인가는 구체화해서 제시되어야만 논의가 시작되리라는 뜻에서 기대고 비빌 언덕을 마련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리하는 일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연구는 해 봐야 쓸모 없겠다는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연구의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를 단기간에 수행하고자 하는 뜻은, 이 연구의 성격상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실험과 조사를 거쳐 입증될 연구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표를 구체화하는 일로 귀결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관찰보다는 집중적인 집단사고가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매주 이 모임을 갖고 문제를 의논하기로 한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은 크고 원대합니다만, 이 연구를 위해서 우리 연구소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더구나 일정이며 과제의 성격이며 모두가 여러 선생님들을 실망시킬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더라도 그 분주함이 어떠한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십사 하고 감히 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내보이는 것은 선생님들의 희생적인 애정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지니는 의의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흔쾌히 동참을 허락하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애정과 관심에 기대어 이 일을 수행하고 그 보람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을 믿고 시작한 일에 아낌 없는 도움을 주시기 간청합니다.